

기획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6차 회의

일시: 2009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6차 회의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와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지향해야 할 점과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靑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광주일보가 앞장서야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



문화재 발굴 발표 언론 무관심 심각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변종 성매매 보도 호기심만 자극

문상필 (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도시 경쟁력...'시리즈 신선한 시도 돋보여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지역상품 사주기 언론이 적극 나서야

▲이묘숙(송은갤러리 관장) = 광주일보 9월15일자 3면 '박대통령도 4대강 했다'는 제목의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여러 문제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일보만의 관점은 전혀없이 무조건 연합뉴스의 기사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 선도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영산강의 경우 4대 강 중 가장 소홀하게 다루질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일보에서 이에 대해 중심을 잡아 보도해줘야 한다.

지난 9월23일자 6면 토크시리즈 '집착촌 줄고 신·변종 업소 활개'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를 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변종 업소가 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읽다보면 신·변종 업소에 대해 몰랐던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였다. 오히려 역작용이 아닌가 불만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변종종 행태를 소개해주는 단어 선택도 좋지 않아 지역사회 전반이 퇴폐적으로 보이게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을 땐 단어선택에 있어서 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일자 12면은 추석특집으로 전남지역 특산품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있었다. 나도 모르는 우리 지역 특산품을 정확하고 세세히 써줘 무척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지역신문이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석 특집인 만큼 3일정도 일찍 소개해줬으면 기사를 보고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소개돼 다소 아쉬웠다.

▲문상필(광주시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 = 17면인 오피니언면의 경우 이 지역 리더들의 좋은 글로 지면이 채워지는 곳이다. 하지만 광주일보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면이 광주·전남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징인 위주의 글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리더들의 글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내용이 채워지면 좋겠다.

지난 12일자 12면의 '광주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 기획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도시경쟁력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가 적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움 준 시리즈 기사였다. 하지만 추상적인 문제제기 뿐 컨텐츠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다.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문 이사장이 좋은 지적 해주셨다. '광주 도시경쟁력을 높이자' 기사가 많은 관심을 끌긴 했지만 내용이 너무 추상적으로 흘러버렸다. 지금은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가야 하는지 방향 제시를 해야하는

데 추상적 제시에 그쳐 어렵다. 환경, 생태 등 각 파트별 전문가가 좀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임선숙(변호사·전 광주변호사회협회 공보이사) = 지난 9월21일자 6면의 '불법증거 무죄' 혐의 입증해도 무죄' 기사는 형사소송법이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것으로 개정된 뒤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였다. 이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라고 하는데 기사에서 좀더 알기 쉽게 풀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최근 예 전남도청 별관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입안했던 공공시설의 지방이전이라는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현 정권은 실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한전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선 정부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정책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 또한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일보가 잘 다루셨으면 한다.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문화도시일자리사업단 본부장) = 도청 별관 문제가 일단락 되긴 했지만 왠지 님은 님으로 지역민들은 문화도시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해 타 지역에 아시아문화도시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별관 문제가 해결된 이상 어떻게 문화도시를 잘 만들 것인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광주일보의 기사도 타 지역과 정부, 각 단체들을 독려하는 기사를 많이 실어줬으면 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서 광주의 열정을 외부에 알리는데 광주일보가 앞장서야 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일사일촌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도 회사와 연계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초기에는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탓에 회사에서도 적극 나서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사들해지면서 교류도 적어진다. 광주일보에서도 일사일촌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회사들의 관심도 높이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한다.

▲박순형 = 최근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무안공항의 경우 광주의 국제사업과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원로가 없다고 한탄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제대로 바로 잡을 목소리는 적다. 이 문제를 광주일보에서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일자 1면에 광주시민들이 지역에서 만드는 차를 보면

임선숙 (변호사)



'불법증거 무죄' 기사 중요성 강조 했어야

류동훈 (문화도시일자리 본부장)



도청별관 논란 시민 피로감 풀어주길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1면 토크시리즈 이슈 중심 편집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자자동차 문제만이 아니다. 타 지역 내 골짜기 있는 브랜드는 그 지역 내에서 시장점유율 70% 가량 되는데 광주는 이같은 공식이 통용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시민들이 자주 애용해야 다른 기업을 더 유치해 고용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현중(국립광주박물관장) = 박 사무처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광주 시민들이 지금의 오비맥주가 우리 지역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우리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지역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광주일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 최근 광주일보 1면 토크시리즈가 과연 시의적절한 기사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 8월 1면의 '당신이 사신속 꼬마상주' 기사는 의미있었지만 단일의 이슈화 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같은 날 쌀값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1면에 와야하지 않나 싶다. 지역민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 1면 토크시리즈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6일 5면 무안반도 통합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통합 찬성 의견이 나와 힘이 실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 기사를 보면 신안군 초대 군수와 시의원 두명의 성명서만이 발표돼 있다. 이 두명의 찬성이 마치 전체의 찬성인양 나와서 여론이 호도될 여지가 있다. 제목 등에서 더욱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조현중 = 광주에서 한달이면 5곳 이상에서 문화재가 발굴 또는 조사되는데 언론에서는 성과에 대해 전혀 말해주지 않고 있다. 큰 유적이 발굴되도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지 않고 있어 이슈가 사장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한 지역에서 몇달만 발굴이 예정돼 있다는 기사가 자주 나가는데 이 기사를 본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한다. 광주·전남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이 없다. 우리지역 문화재에 대해 기자들이 많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정리=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uction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

수완롯데마트바로 옆 수완아울렛. Commerci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Aul生活 center.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